

을미의제 군복제도의 서구화에서 보여진 수입 직물산업 동향

강 빛 나[†]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

Trends in Textile Import Industry amid Military Uniform Westernization under the Eulmi Reforms of Clothing Regulation

Bit Na Kang[†]

Ph. D., Dept. of Fashion Design, Dong-A University, Korea[†]
(2022. 1. 17 접수; 2022. 2. 21 수정; 2022. 5. 11 채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arify relationships between the westernization of military uniform systems and changes in the textile import industry during the Eulmi reforms of clothing regulation. For the goal, the study investigated the content and features of <Dress Code for the Army> that had been enacted under the Eulmi reforms. It also examined the status of the textile import industry at the time, especially in relation to outer garments such as jackets or Eui, trousers or Go, and overcoats. Moreover, this study inspected how the above westernization changed the textile import industry. More specifically, the research analyzed the content of <Dress Code for the Army> based on articles from the then state newsletter or 『Gwanbo』, and the then cabinet meeting or Euijeongbu's proceedings or 『Euiju』. Concerning the textile import industry, this study looked into relevant descriptions and trade statistics from 『KOPEⅡ(Hankukji)』, and analyzed changes in that industry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ilitary uniform system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increased imports of cotton fabrics during the Eulmi reforms of clothing regulation was correlated with surging demand for shirt or lining materials and increase in the use of Myeonyung following military uniform westernization. Similarly, an increase in silk fabric imports was an outcome of increased demand for lining materials. Also, the import growth of woolen fabrics was seemingly attributed to the use of Heuknasa and Heukyung as basic materials of military uniforms. Thus, military uniforms began to be made of fabrics, which hadn't been used before in the wake of westernization. This development brought changes in the textile import industry, which is supported by textile import statistics of the time. In conclusion, the westernization of military uniform systems under the Eulmi reforms of clothing regula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that changed the industry.

Key Words: Eulmi reforms of clothing regulation(을미의제개혁), military uniform system(군복제도), textile industry(직물산업), westernization(서구화)

[†]Corresponding author; Bit Na Kang

Tel. *** - **** - ****

E-mail : qlcsk910@gmail.com

I. 서론

을미의제개혁(乙未衣制改革)은 개화파에 의해 시행되었던 국가 근대화 정책 중 하나인 복식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갑신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 갑오의제개혁(甲午衣制改革)의 복식 간소화 과정을 거쳐 서구식 복식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던 의제개혁이다. 18세기 중엽 유럽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은 직물의 과잉생산과 원료공급 문제를 야기시켰고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판매시장과 원료공급지 개척을 위해 아시아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구희경, 1999). 이러한 영향은 조선에도 파급되었고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국가 근대화 정책을 통해 부국강병한 국가를 수립하여 외세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그중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되는 군력(軍力)을 강화하기 위해 군제(軍制)를 근대화시켰으며 군복제도에도 근대식, 즉 서구식 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선의 서구식 군복제도 도입은 일정한 근대화 목표하에 자연스럽게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제국주의 열강들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의 정치계에 어느 국가가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군복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였다(국방군사연구소, 1997).

조선은 조선보다 앞서 국가 근대화 정책을 시행하였던 일본과 최초의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 1876년)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대화 초기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며 조선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군사훈련을 받았던 별기군(別技軍, 1881년~1882년)도 이러한 영향 아래 설치되었다(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별기군의 군복은 최초의 서구식 군복이라고도 하지만 조선의 기존 복식 형태인 저고리, 바지에 덧저고리를 착용하는 형태였고 테가 좁은 립(笠)을 썼으며 단추, 버클이 달린 허리띠 등 서구식 구성품이 혼용된 형태였다. 이후 임오군란(壬午亂, 1882년)의 영향으로 청(淸)의 군제를 모방한 신건친군(新建親軍)이 새롭게 편제되면서 청의 군복제도를 따른 군복을 착용하게 되었다(김정자, 1998). 당시 청의 군복제도에는 서구식 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바탕 소재는 청색 모직물을 사용하였고 군복의 형태는 둥근 깃에 매듭단추로 여미는 형태로 앞여밈 부분과 옆구리 부분에 여의주문(如意珠紋)으로 장식하

였다(이강칠, 1993). 갑신정변(甲申政變, 1884년) 이후에는 조선의 전근대적 군복제도였던 구군복(舊軍服) 제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군복의 바탕 소재로 견직물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김정자, 1998).

조선은 을미의제개혁 시기 청일전쟁(淸日戰爭, 1894년)에서 승리한 일본의 내정간섭을 받으며 신식 군대 편성 및 새로운 군제를 도입하였고 이와 함께 서구식 군복제도인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을 제정하였다(관보, n.d.). 〈육군복장규칙〉은 조선에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던 서구식 복식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본 제도는 경관복(警官服) 제도 등 각종 서구식 복식제도의 바탕이 되었다(이경미 외, 2018).

조선은 국가 근대화 정책의 일환인 서구식 군복제도 도입 이외에도 세계 각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며 근대화 무역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종 서구식 상품이 국내에 유입되었다. 그중 직물은 수입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송규진, 2003) 이는 을미의제개혁 당시 모직물을 비롯해 기계에 의해 생산되었던 직물을 주요 의복 소재로 사용하였던 서구식 복식제도와 관련이 있다(안현주, 2006).

을미의제개혁 시기 군복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 군복의 전 역사와 변천을 다룬 연구(손경자, 1974; 국방군사연구소, 1997; 김정자, 1998 등)와 특정 시기 군복과 그 변화를 다룬 연구(김현순, 1981; 이경미 외, 2018; 김정민, 2019 등)가 이루어 졌다. 을미의제개혁 시기 수입 직물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수입 직물의 전반적인 고찰을 비롯해 한복을 중심으로 수입 직물이 수용될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본 연구(박진경, 2014)와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의 종류와 각 직물의 무역 특성을 살펴본 연구(김순영, 2021) 등이 진행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을미의제개혁 시기 서구식 군복제도 도입은 수입 직물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을미의제개혁 시기 군복제도와 수입 직물산업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였다.

그러나 을미의제개혁 시기 서구식 군복제도의 도입과 수입 직물산업의 변화는 당시 조선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당면한 문제점 등에 의해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므로써 서구식 군복

제도 도입과 관련한 수입 직물산업 변화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서로 대조하고 분석하여 정리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을미의제개혁 시기 <육군복장규칙>의 군복제도 내용 및 특징과 해당 시기의 수입 직물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봄으로써 군복제도의 서구화와 수입 직물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을미의제개혁 시기 첫째, 군복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해당 시기 수입 직물산업의 현황을 정리하며 셋째, 서구식 군복제도가 수입 직물산업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요인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을미의제개혁 시기인 1895년으로 설정하되, 수입 직물산업의 현황에서는 을미의제개혁 시기 직물 수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1886년부터 대한제국의제개혁으로 군복제도가 개정되기 전 시기인 1896년으로 제한하였다. 연구 대상은 을미의제개혁 시기 서구식 복식제도가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군복제도인 <육군복장규칙>에서 직물 사용의 비중이 많은 의(衣, 이하 상의(上衣)), 고(袴, 이하 바지), 외투(外套) 등의 의의(外衣)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가 공식기관지인 『관보(官報)』와 의정부 회의록인 『의주(議奏)』 등에서 군복제도 관련 기록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수입 직물산업 관련 자료는 『KOPEI(韓國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KOPEI』은 19세기 말 러시아가 조선을 장악할 목적으로 본국 내 조선학 관련 학자들을 두고 조선의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하였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총체적 조사 연구서이자 정책자료집으로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a) 당시 조선의 수입 직물산업 현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본 자료는 조선의 직물 관련 무역통계 자료에 대

해 러시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조선의 직물산업을 조사, 연구하였던 일본의 자료(가지무라 히데키 외, 1983)에 비해 세부적인 직물의 종류와 수치를 다루며 국내 직물산업 관련 내용이 세밀하게 정리되어있으므로 『KOPEI』에 수록되어있는 직물 수입 관련 기록을 발췌하여 분석하였고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서구식 군복제도 도입과 연관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Ⅱ. 을미의제 군복제도의 서구화 내용과 특징

1. 서구화의 내용

을미의제개혁(1895년) 시기 서구식 군복제도를 따라 제정되었던 <육군복장규칙>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육군복장규칙>이 처음 제정되었던 당시(4월) 본 규정의 적용대상 범위는 훈련대 보병과 장교(訓練隊步兵科將校)에만 한하였고 이후 적용대상 범위 규정이 계속해서 개정되면서 윤5월에 시위대, 8월에 군부 내무관급 상당관과 외국 유학군인, 9월에 일반 육군 군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관보, n.d.). <육군복장규칙>에 나타난 장교(將校)의 계급은 장관(將官)(대장(大將), 중장(中將), 소장(小將), 영관(領官)(정령(正領), 부령(副領), 참령(參領), 위관(尉官)(정위(正尉), 부위(副尉), 참위(參尉))로 나누어져 있었다(의주 6책, n.d.).

본 군복제도는 총 5장으로 부칙을 포함하여 26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관보, n.d.) 그 내용은 군복의 종류와 착용시기, 복장의 구성, 착용대상 등이었다. 군복의 종류는 정장(正裝), 군장(軍裝), 예장(禮裝), 상장(常裝)으로 각 복장의 내용에 대

<표 1>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 관련 내용

순서	내용 요약
제1장	총칙(總則, 제1조-제10조)
제2장	패착통칙(佩着通則, 제11조-제21조)
제3장	정장(正裝, 제22조)
제4장	군장(軍裝, 제23조)
제5장	예장(禮裝, 제24조)
부칙(附則)	적용대상 범위 등(제25조-제26조)

출처: 관보(官報) 및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문화자료총서: 구한국 관보 복식 관련 자료집 참고로 연구자 작성

해 살펴보면 정장은 성절(聖節), 각전탄일(各殿誕日)과 원조동지문안여진하(元朝冬至問安與陳賀), 태묘행행(太廟幸行), 태사행행(太社幸行), 산릉행행(山陵幸行) 등 의식제사(儀式祭事), 대례시(大禮時)에 착용하는 것으로 모자, 전립(前立), 상의, 바지, 견장(肩章), 식대(飾帶), 도[검](刀[劍]), 정서(正緒), 백혁수투(白革手套: 백색 가죽장갑), 백포하금(白布下襟: 칼라 안쪽에 붙이는 백색 땀받이)(국방군사연구소, 1997), 화(靴)로 구성하였다. 군장은 진시출정(戰時出征), 비상출병(非常出兵), 군대제근무(軍隊諸勤務), 위술근무(衛戍勤務), 주변근무(週番勤務), 중대이상 연습(中隊以上演習) 시에 착용하는 것으로 모자, 상의, 바지, 도(검), 도서(刀緒), 하금, 오련단총(五連短銃), 화, 안경(眼鏡, 포병장교 외에는 수의(隨意))으로 구성하였다. 예장은 궁내(宮內)에서 배식(陪食) 시, 예절(禮節)로 상관(上官)에 대견(對見)할 시, 야회(夜會)와 그 외 공식연회(公式宴會) 시, 친척(親戚)의 하의(賀儀)·제사(祭事)·장사(葬事) 시에 착용하는 것으로 모자, 상의, 바지, 도(검), 정서, 백혁수투, 하금, 화로 구성하였다. 상장은 공사(公私)를 물론하고 항상 착용하는 것으로 복장 구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었다. 각 복장은 장교와 하사졸(下士卒)을 물론하고 공통으로 착용하는 복장이었으나 예복은 장교에만 한하였다(관보, n.d.).

당시 군복제도는 이 외에도 하복(夏服)과 외투, 일차(日遮: 햇빛가리개) 등 특정 군복의 착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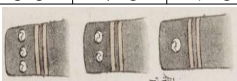

기 및 착용법과 도, 검, 정서, 도서, 식서, 현장(懸章), 단고(短袴), 수투, 하금 등의 패용(佩用)법인 패착통칙, 각 복장에 따른 마장(馬裝, 승마 시 복장)의 구성을 포함하였다. 부칙에는 이 규칙을 훈련대 보병과 장교에 적용할 것과 훈련대 회계관(會計官) 및 의관(醫官)의 복장 규칙에 대해 기록하였다(관보, n.d.).

이상과 같이 을미의제 시기 군복제도의 서구화 내용을 보았을 때 군복은 정장, 군장, 예장, 상장의 4종류로 나누어졌으며 각 복장에 따라 착용시기와 구성, 착용대상 등을 달리하였다.

2. 서구화의 특징




『의주』 6책에는 군복의 구성품인 모자, 상의, 바지, 외투, 도(검), 정서, 식대, 견장, 마장의 제식과 도식, 주변(週番)의 현장·대도(帶刀), 도(검)의 대법(帶法), 위관의 정장(尉官正裝), 위관의 상장(尉官常裝), 현장의 패용법(佩方), 식서, 검의 도식이 수록되어있는 <육군장교복제도례해역(陸軍將校服製圖例解譯)>이 기록되어 있다(의주 6책, n.d.). 이를 통해 군복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의는 <표 2>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흑색 나사(黑羅紗) 직물을 바탕 소재로 하였고 단추는 무늬가 없는 은을 사용하였다. 수장(袖章: 소매에 계급을 표시하는 표장)은 계급에 따라 금선(金線)의 줄 수와 은색 태극 단추(銀色太極鈕)의 수를 다르

<표 2> 을미의제의 군복 상의(上衣) 규정

명칭(名稱)	장관(將官)			영관(領官)			위관(尉官)		
품질(品質)	흑나사(黑羅紗)								
도식(圖式)									
	금선(金線)								
수장(手章)	3줄			2줄			1줄		
	은색태극단추(銀色太極鈕)								
	대장	중장	소장	정령	부령	참령	정위	부위	참위
									

출처: 의주(議奏) 6책 참고로 연구자 작성

〈표 3〉 을미의제의 군복 바지(袴) 규정

명칭 품질	장관	영관	위관
도식			
	적용(赤絨)		
고근(袴筋)	3줄	폭(幅)이 다른 1줄	

출처: 의주(議奏) 6책 참고로 연구자 작성

게 하였고 금장(襟章: 칼라에 계급을 표시하는 표장)은 계급에 따라 은제별(銀製星)의 개수를 다르게 하였다(의주 6책, n.d.). 상의의 형태는 스탠드업 칼라(stand-up collar)에 앞 중심에 단추 5개를 단 싱글 브레스티드(single breasted) 형태였다.

바지는 〈표 3〉의 도식에 의하면 흑색 용(黑絨) 직물을 바탕 소재로 하였고 바지 측면에는 계급에 따라 줄 수를 다르게 하여 적색 용(赤絨) 직물을 봉제하였는데, 장관은 3줄(三條), 영관과 위관은 각각 1줄(一條)로 하되 줄의 폭(幅)을 다르게 하였다(의주 6책, n.d.).

외투는 〈표 4〉의 도식과 같이 흑색 용 직물을 바탕 소재로 하였고 무늬가 없는 은 단추를 사용하였다. 수장은 계급에 따라 은별(銀星)의 수와 금선의 장식을 다르게 하였다(의주 6책, n.d.). 외투의 형태는 도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앞판 좌우에 각각 단추 5개를 단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 형태였다(의주 6책, n.d.).

을미의제 시기 서구식 군복제도의 도입은 청

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으며, 군복의 소재와 형태는 당시 프랑스군과 독일군의 군복제도를 따랐던 일본군의 군복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국방군사연구소, 1997).

군복의 소재로 사용되었던 나사와 용 직물에 대해 살펴보면, 나사는 모사(毛絲)로 직조한 모직물로서 보온 효과가 뛰어나 겨울용 양복과 코트의 소재로 사용되었던 직물이다(국립민속박물관, 2017a). 용은 면사(綿絲) 혹은 모사를 사용하여 평직이나 능직으로 제작한 뒤 기모기로 털이 일어나도록 가공하였던 직물로서 부드럽고 보온 효과가 좋았던 직물이다. 『조선상염직물명칭유휘(朝鮮尙染織物名稱類彙), 1915』에 따르면 용은 면플란넬(flannel, 漢羅)이라고도 하였고 두꺼운 모직물 및 유사한 제품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국립민속박물관, 2017b).

이상과 같이 직물산업 측면에서 을미의제 시기 군복제도의 서구화 특징을 보았을 때 군복 상의의 바탕 소재는 흑색의 나사 직물이 사용되었고 이를 제외한 바지, 외투의 바탕 소재는 흑색의 용

〈표 4〉 을미의제의 군복 외투(外套) 규정

명칭 품질	장관	영관	위관
도식			
	흑용(黑絨)		

출처: 의주(議奏) 6책 참고로 연구자 작성

직물이 사용되었다. 상의와 외투의 형태는 각각 스탠드업 칼라에 싱글 브레스티드와 더블 브레스티드 형태로 제작되었고 바지 또한 서구식 바지 형태로 제작되어 군복제도의 서구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을미의제개혁 시기 수입 직물산업의 현황

1. 면직물

을미의제개혁 시기(1895년) 『КОРЕИ』에 기록되어 있는 직물 수입 관련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면직물 수입의 현황은 <표 5>와 같다.

면직물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시기 수입된 면직물의 종류로는 셔츠지, 안감면직물, 면플란넬(면용) 등이 있었으며 을미의제개혁 이전 시기인 1886년부터 1894년까지 면직물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1894년의 면직물 수입 증가인데, 이는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조선 내 직물 수입 시장을 점차 장악하기 시작한 1894년부터 셔츠

지와 면용 수입에 일본산 직물이 포함되면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b) 발생한 현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을미의제개혁 시기에는 셔츠지 수입이 전년 대비 61%가량 증가하였고 안감면직물 수입이 24%가량 증가하였다. 한편 면플란넬 수입은 43%가량 감소하였다. 다음 해인 1896년에는 셔츠지 수입이 전년 대비 37.5%가량 감소하였고 안감면직물 수입과 면용 수입은 각각 23%와 45.6%가량 증가하였다. 당시 셔츠지와 면용은 유럽산 직물과 일본산 직물이 함께 수입되었는데, 유럽산 셔츠지 수입은 감소, 면용 수입은 증가한 것에 반해 일본산 셔츠지와 면용 수입은 모두 감소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b). 이는 1896년 아관파천(俄館播遷)이 발생하면서 고종은 일본의 영향 아래에서 시행되었던 각종 제도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이 일본산 면직물 수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산 셔츠지와 면용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셔츠지 수입은 상당량 감소한 것에 비해 면용 수입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럽산 면용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면직물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그중 을미의제개혁 시기의

<표 5> 을미의제개혁 시기 면직물 수입의 현황^a

(단위 : \$)

년도	셔츠지	안감면직물	면플란넬(면용)
1886년	1,140,064	2,309	기록없음
1887년	1,489,515	6,499	
1888년	1,329,942	12,476	
1889년	1,207,799	16,891	
1890년 (일본의 직물생산 급증)	1,768,979	13,019	3,205
1891년	1,955,536	20,647	2,989
1892년	1,403,730	17,795	2,789
1893년	1,175,215	13,615	3,417
1894년 (청일전쟁, 갑오의제개혁)	1,622,789	43,185	8,132
1895년 (을미의제개혁)	2,612,378	53,729	4,669
1896년 (아관파천)	1,632,935	65,919	6,797

a.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1984b), 국역 한국어: 부록·색인(KOPEИ) 참고.

〈표 6〉 을미의제개혁 시기 견직물 수입의 현황^a

(단위 : \$)

년도	견직물
1886년	25,518
1887년	166,632
1888년	216,873
1889년	172,468
1890년 (일본의 직물생산 급증)	306,956
1891년	429,117
1892년	378,522
1893년	362,426
1894년 (청일전쟁, 갑오의제개혁)	370,905
1895년 (을미의제개혁)	771,309
1896년 (아관파천)	375,921

a.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1984b), 국역 한국어: 부록·색인(KOPEI) 참고.

서츠지 수입과 안감면직물 수입은 증가하였고 면용 수입만 감소하였다.

2. 견직물

을미의제개혁 시기(1895년) 『KOPEI』에 기록되어 있는 직물 수입 관련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견직물 수입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견직물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을미의제개혁 이전 시기인 1886년부터 1894년까지 견직물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을미의제개혁 시기에는 견직물 수입이 전년 대비 108%가량 증가하였고 이후 1896년에는 견직물 수입이 전년 대비 51%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아관파천의 영향이 일부 작용하여 견직물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견직물 수입도 면직물 수입과 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중 을미의제개혁 시기에 견직물 수입이 상당량 증가하였다.

3. 모직물

을미의제개혁 시기(1895년) 『KOPEI』에 기록되어 있는 직물 수입 관련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

구자가 작성한 모직물 수입의 현황은 〈표 7〉와 같다.

모직물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시기 수입된 모직물의 종류로는 플란넬(모용), 회색 및 러시아제 나사, 이태리안 나사 등이 있었으며 을미의제개혁 이전 시기인 1886년부터 1894년까지 모직물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그중 1894년 모직물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같은 시기 면직물 수입 증가에 영향을 주었던 청일전쟁이 모직물 수입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을미의제개혁 시기 모용 수입은 전년도 대비 25.8%가량 증가하였고 회색 및 러시아제 나사는 450%가량 증가하였으며 이태리안 나사도 53.5%가량 증가하였다. 1896년에는 모용 수입이 72%가량 감소하였고 회색 및 러시아제 나사 수입은 22.5%가량, 이태리안 나사 수입은 92%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면직물 수입과 견직물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던 아관파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모직물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며, 을미의제개혁 시기에는 모용, 회색 및 러시아제 나사, 이태리안 나사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고 그중 회색 및 러시아제 나사가 많은 양 증가하였다.

〈표 7〉 을미의제개혁 시기 모직물 수입의 현황^a

(단위 : \$)

년도	플란넬(모용)	나사 (회색 및 러시아제)	이태리안 나사
1886년	550	5,942	기록없음
1887년	1,373	4,414	
1888년	1,707	4,060	
1889년	1,325	5,318	
1890년 (일본의 직물생산 급증)	1,500	8,746	11,253
1891년	2,242	6,542	168
1892년	1,242	3,500	300
1893년	1,126	1,305	826
1894년 (청일전쟁, 갑오의제개혁)	3,566	3,042	1,612
1895년 (을미의제개혁)	4,486	16,734	2,475
1896년 (아관파천)	1,258	12,960	205

a.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1984b), 국역 한국어: 부록·색인(KOPEI) 참고.

IV. 을미의제 군복제도와 수입 직물산업

1. 면직물

을미의제개혁 시기에는 면직물 중 셔츠지와 안감면직물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군복제도가 서구화되면서 상의 안에 착용하는 셔츠를 비롯해 앞서 언급하였던 땀받이 제작 등에 셔츠지와 안감면직물이 사용되면서 각 직물의 수입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면용 수입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육군복장규칙〉의 개정 에 따른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그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육군복장규칙〉에서 군복의 바탕 소재는 면용과 모용(毛絨)의 구분 없이 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모직물은 고가의 직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군인의 복장 소재로는 모용을 사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유추된다. 이에 용은 착용자의 계급과 복장의 용도에 따라 면용과 모용이 함께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한

제국 시기(1897년 ~ 1910년) 법령 중 군인의 평복 소재로 수입 직물인 용 대신 국내산 고구라(古舊羅, ころら: 두꺼운 무명 직물[야스다 요시미, 손낙범, 1996])를 제용(製用)하도록 하였던 법령이 있어(송병기 외, 1971) 군복 소재의 면용 사용에 대한 의견을(김정민, 2012) 뒷받침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을미의제개혁 시기 면용 수입이 감소한 것은 앞서 살펴본바 〈육군복장규칙〉이 처음 제정되었던 4월에는 훈련대 보병과 장교에게만 적용되었다가 9월에 일반 육군 군인에게도 적용되면서 이것이 당시 면용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군복 규정이 일반 육군 군인에게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차로 인해 다음 해(1896년) 면용 수입 증가(46%가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을미의제 군복제도의 서구화에서 보여진 수입 면직물산업의 동향을 정리하자면, 면직물 수입은 셔츠지, 안감면직물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셔츠의 착용과 안감으로 면직물이 사용되면서 각 직물 수요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면용 수입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개정된 군복 규정이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차로 인해 당시의 면용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음 해 면용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 론

2. 견직물

을미의제개혁 시기에는 견직물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구식 군복제도의 도입으로 안감지용 견직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견직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조선 산업 조사서에도 의복의 안감지로 견직물이 사용된다는(아마구치 세이, 1910) 기록이 있어, 안감지용 견직물 사용으로 인한 견직물 수입의 증가에 대한 의견을 뒷받침해주었다.

이와 같이 을미의제개혁 시기 견직물 수입의 증가는 군복제도의 서구화로 인해 양복의 안감 소재로 사용되었던 견직물 사용이 증가하면서 견직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모직물

을미의제개혁 시기에는 모직물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군복의 서구화로 인해 군복의 바탕 소재가 상의는 흑색 나사, 바지와 외투는 흑색 융 등으로 규정되면서 나사와 모용 등의 직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군복의 바탕 소재로 규정되었던 나사와 융 직물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여야 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a). 군복은 국가에서 1년에 2벌 지급하였고 펠트모(영국의 헬멧과 유사함)와 나사 소재로 제작되었던 후드 형태의 모자가 달린 외투, 모포도 지급하였으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a),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 이외에도 상점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었다(독립신문, 1896). 이에 따라 수입 모직물 중에서도 나사가 많은 양 수입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을미의제 군복제도의 서구화에서 보여진 수입 모직물산업의 동향을 정리하자면, 모직물 수입은 모용, 회색 및 러시아제 나사, 이태리안 나사의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군복제도의 서구화로 군복 소재가 흑나사, 흑용 등으로 규정되면서 모직물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을미의제 군복제도의 서구화에서 보여진 수입 직물산업의 동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을미의제 군복제도의 서구화 내용과 특징은 당시 군제에 근대적 제도가 수립 및 개편되면서 <육군복장규칙>이 제정되었고 군복이 서구화되었다. <육군복장규칙>에 의하면 군복은 정장, 군장, 예장, 상장의 4종류로 나누어졌으며 각 복장에 따라 착용시기와 복장의 구성, 착용대상 등을 달리하였다. 군복은 모자, 상의, 바지, 도, 장갑, 외투 등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상의와 외투의 형태는 각각 스탠드업 칼라에 싱글 브레스티드와 더블 브레스티드의 형태로, 바탕 소재는 흑색 나사와 흑색 융 직물 등으로 규정되었다. 바지 또한 서구식 바지 형태에 바탕 소재가 흑색 융 직물로 규정되면서 군복제도의 서구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을미의제 시기 수입 직물산업의 현황은 수입 직물의 종류를 보면 셔츠지, 안감면직물, 면플란넬(면용) 등의 면직물과 세부적인 종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견직물, 플란넬(모용), 회색 및 러시아제 나사, 이태리안 나사 등의 모직물이 있었다.

각 직물의 수입액에 따르면 면직물과 견직물 수입은 1886년부터 1894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모직물 수입은 1886년부터 1894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그중 1894년에는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 발생한 청일전쟁이 수입 직물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을미의제 시기(1895년)에는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수입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고 이후 시기(1896년)에는 면직물 수입을 제외한 견직물, 모직물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는 아관파천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을미의제 군복제도와 수입 직물산업은 해당 시기(1895년)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수입을 보면 이전 시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은 양 증가하였다. 면직물 수입의 경우 셔츠지, 안감면직물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면용 수입은 감소하였다. 셔츠지와 안감면직물 수입의 증가는 서구식 군복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셔츠의 착용과 안감으로 면직물이 사

용되면서 각 직물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면용 수입의 감소는 개정된 군복 규정이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차에 의해 해당 시기의 면용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 다음 해(1896년) 면용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견직물 수입의 증가는 서구식 군복제도 도입으로 안감지용 견직물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견직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직물 수입의 경우 모용, 회색 및 러시아제 나사, 이태리안 나사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군복의 바탕 소재가 흑나사, 흑용 등으로 규정되면서 당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모용, 나사 등의 수입 모직물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을미의제개혁 시기 군복 제도의 서구화는 시대적, 정치적, 경제적 등의 상황과 당면한 문제점 등이 반영된 결과물으로써, 서구식 군복제도 도입은 군복의 소재로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기계제 수입 직물 수요 증가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고, 군복 소재와 관련된 수입 직물산업 변화를 초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첫째, 을미의제개혁 시기 수입 직물산업의 변화는 영국, 러시아, 미국, 청, 일본 등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일본의 직물산업 변화, 조선 내 서구식 경관복제도 도입, 단발령 및 서구식 의복 허용 등의 시대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받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서구식 군복제도 도입만이 수입 직물산업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서구식 군복제도 도입이 수입 직물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수입 직물산업 관련 자료로 러시아의 조선 조사서인 『КОРЕИ』을 중심으로 수입 직물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선해관의 무역 보고서인 『조선해관연보(朝鮮海關年譜, 中國海關年譜 附錄)』와 일본의 조선 면직물산업 연구조사서인 『조선면업사(朝鮮綿業史)』 및 조선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조사서인 『조선산업지(朝鮮産業誌)』 등이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을미의제개혁 시기 일본의 직물

산업은 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참고된다면 국내 수입 직물산업 변화에 대해 더욱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군복의 구성 중 소재 사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상의, 바지, 외투의 바탕 소재를 중심으로 수입 직물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군복의 부속품을 포함하여 더욱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군복 제도의 각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차와 시행 정도에 대한 연구가 추가된다면 수입 직물산업의 변화와 관련하여 더욱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외. (1983). *한국근대 경제사연구*. 서울: 사계절.
- 관보(官報). (n.d.). 자료검색일 2021. 7. 13, 자료출처 <https://www.nl.go.kr/NL/contents/N20301000000.do/>
- 구희경. (1999). 영국산업혁명이후의 텍스타일에 표현된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 141-156.
- 국립민속박물관. (2017a).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1*.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2017b).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2*.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국의 군복식발달사 I: 고대~독립운동기*.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김순영. (2021).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 상품의 종류와 무역 특성: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45(5), 770-787.
- 김정민. (2012). *구한말 경찰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2019). *한국광복군의 군복과 군용장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자. (1998). *한국군복의 변천사 연구: 전투복을 중심으로*. 서울: 민속원.
- 김현순. (1981) *군복에 대한 연구: 구군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2011).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문화자료총서: 구한국 관보 복식 관련 자료집*. 서울: 민속원.
- 독립신문. (1896. 4. 16). 자료검색일 2021. 9. 1, 자료출처 <https://www.nl.go.kr/newspaper/>
- 박진경. (2014).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수입 직물의 수용과 의생활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한국경찰복제사*. 서울: 경찰청.
- 손경자. (1974). 한국근대(1894~1910) 군복장 연구. *세종대학 논문집*, 6, 287-307.
- 송규진. (2003). 개항기 조선과 서양의 경제교류. *민족문화논총*, 28, 325-359.
- 송병기 외. (1971).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II*. 서울: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안현주. (2006). 18, 19세기 남성 코트를 응용한 디자인과 패턴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145-157.
- 야마구치 세이(山口精). (1910). *조선산업지 중, 동경*: 보문관.
- 야스다 요시미(安田吉實), 손낙범. (1996). *민중 옛센스 일한사진*. 경기: 민중서림.
- 의주(議奏) 6책. (n.d.). 자료검색일 2021. 7. 13, 자료출처 <https://kyudb.snu.ac.kr/>
- 이강철. (1993). 임오군란후 친군제도와 군복에 대한 소고. *학예지*, 3, 31-47.
- 이경미 외. (2018). 대한제국기 육군 복장 법령의 시기별 변화. *한국문화*, 83, 475-51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4a). *국역 한국지: 본문(KOPEI)*.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4b). *국역 한국지: 부록·색인(KOPEI)*.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